

『로동신문』의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분석 1966년부터 1973년까지*

서민정(히토쓰바시대학교)

이 글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에 1966년 7월 9일부터 1973년 10월 28일까지 총 554회에 걸쳐 연재된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북한의 언어 정책의 사회 통제적 국면 및 그 중심 사업이었던 ‘국어순화운동’의 사회 수용적 국면을 표면화시키는 과정을 주안으로 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상토론’의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다듬어진 말이 아니라 토론의 과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북한 사회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말’이라고 느꼈던 말과 그 말에 대한 감각을 끌어내는 토론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내용 분석으로는 당시 북한에서 발간된 출판물·논문 등을 참조하였고, 북한의 언어 정책과 ‘국어순화운동’의 연구에서의 ‘지상토론’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주제어: 북한 언어 정책, 국어순화운동, 로동신문,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말 다듬기, 문화어

* 이 글은 “北朝鮮の‘國語醇化運動’に關する考察—1966年から1973年まで『勞働新聞』における〈我々の言葉の整え方についての紙上討論〉の分析”(徐旻廷, 一橋大學大學院, 言語社會研究科修士論文, 2013)의 일부를 번역 및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글에 쓰인 인용문은 원문 맞춤법 그대로 인용하였다(예: 김일성교시, 『로동신문』 등).

1. 서론

이 글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에 1966년 7월 9일부터 1973년 10월 28일까지 총 554회에 걸쳐 연재된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북한의 언어 정책의 사회 통제적 국면 및 그 중심 사업이었던 ‘국어순화운동’의 사회 수용적 국면을 표면화시키는 과정을 주안으로 하는 연구이다.

『로동신문』의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은 북한 사회에서 ‘우리말’, 즉 조선어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요인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어휘를 『로동신문』의 지면에 제시하고 그 치환 어휘에 대하여 일반 공모형식으로 ‘지상토론’한 장기 연재기사이다. 여기에 상정된 조선어 사용자는 학술 영역에 정통한 지식인이나 지역행정 또는 사회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 북한 사회에서 가장 두터운 사회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언어에 대한 감각을 공유함으로써 ‘주체가 된 사람’들이었다. 말 다듬기에 앞서 강조한 것은 ‘알기 쉽게 다듬은 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하여 ‘평등’한 사람들이 ‘주체’로 창조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실현이라는 이상이였다.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북한의 ‘국어순화운동’에서 북한 사회에 실존하는 당시 ‘민중’들의 실제 언어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언어운동의 자료이다. 그뿐 아니라 동시에 국가 유일의 정당기관지 기사로 국가 주체의 언어 정책의 동향에 뒷받침되고 있는 ‘위로부터’의 언어운동의 발로라는 점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텍스트임은 분명하다. ‘우리말 다듬기’라는 북한의 언어 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 위치에 놓여 있었던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조선어를 다듬으려 했던 것은 북한의 언어 정책 연구의 제도사(制度史)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국면을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어휘의 치환을 일종의 등식으로 ‘A=B’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즉 이전의 A라는 어휘가 B로 다듬어졌다는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A라는 어휘가 B라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 속에 북한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개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한의 ‘국어순화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자료적 중요성을 제시하고 그 토론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지상토론’의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다듬어진 말이 아닌 토론의 과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북한 사회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말’이라고 느꼈던 말과 그 말에 대한 감각을 끌어내는 토론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내용 분석으로는 당시 북한에서 발간된 출판물·논문 등을 참조하였고, 북한의 언어 정책과 ‘국어순화운동’의 연구에서의 ‘지상토론’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2.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전개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은 1966년 5월 14일자 언어에 대한 김일성 제2차 교시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의 발표를 직접적인 계기로 개시되었다.

우리 말을 잘 다듬기 위하여서는 신문에 내어 지상토론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언어학도 대중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술용어 같은것도 신문에 한주일에 두세번쯤 내야 하며 다듬을 말을 한번에 열댓개씩 신문에 내어 대중이 평론도 쓰게 하고 질문도 내게 하여야 합니다. 다듬을 말은 중앙신문에도 내고 지방신문에도 내고 그와 반대되는 의견도 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상토론 에서는 제기되는 의견들도 다 알려주어야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상토론을 많이 하여야 우리 말이 잘 다듬어질 뿐아니라 그것이 대중속에 널리 알려집니다. 이와 같이 용어들을 대중이 평론하게 하고 좋은 의견들을 모아 마지막에 표준으로 삼을 말을 정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¹⁾

제2차 김일성교시가 발표된 1966년 6월 이후 내각 직속에 국어사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사회과학원의 국어사정지도처와 언어학 연구소에 있는 18개 분야의 전문용어분과위원회에서는 각 해당 분야의 용어의 ‘우리말’ 다듬기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시행되었다. ‘지상토론’은 1966년 7월 9일부터 1973년 10월 28일(총554회)까지 『로동신문』의 제4면에 게재되었고, 원고명과 전문용어분과위원회명이 기사의 어미에 표기되어 있다. <표 1>에는 원고명과 원고 내용에 대응하는 18개 분야의 전문용어분과위원회와 원고 수를 정리하였다.

각 전문용어분과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이 ‘지상토론’으로서 주 2~3회 정도 매주 게재되었고 독자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모아졌다. 이 지상토론에는 언어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농민·학생·교원 등 각

1) 김일성 제2차 교시,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기 살려나갈데 대하여”(1966.5.14).

<표 1> 원고명으로 분류한 18개 분야의 전문용어분과위원회명과 원고 수

원고명	분과위원회명	원고 수
독자의견	-	116
일반어	일반어용어분과	57
의약학·의학	의약학용어분과	50
농학	농학용어분과	45
물리·수학·화학	자연과학용어분과	37
경공업	경공업용어분과	31
지질·지리·광업	지질광업용어분과	28
운수	운수용어분과	27
생물	생물학용어분과	26
체육	체육용어분과	23
금속	금속용어분과	22
기계	기계용어분과	21
건설·수리	건설수리용어분과	20
사회과학	사회과학용어분과	16
수산해양	수산해양용어분과	15
문학예술	문학예술용어분과	14
전기·통신	전기통신용어분과	12
상품명	상품명용어분과	8
립학	립학용어분과	7
합계		575

계각층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²⁾ 1회 원고에는 어휘 13~16개가 취급되었고, 독자가 보낸 의견은 1년에 500건에서 2,500건에 이르렀다. 『로동신문』에 게재된 ‘지상토론’은 13~16지에 이르는 신문·잡지에 동시 게재되었다. 북한의 대부분의 신문과 잡지에 고정적으로 게재된 ‘지상토론’은 문자대로 국가 규모의 언어적 지혜의 결집이 7년 이상이나 걸쳐 시도된 북한 언어 정책 중에서 매우 독특한

2) 박재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에 대한 연구』(사회과학원, 1999), 102쪽.

장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실제로 1974년 『일반책 단어 만들기 연구』나 1974년 『단어 만들기 연구』와 같이 북한에서는 1974년 이후에 계속된 ‘다듬어진’ 조선어에 대한 연구서가 간행되었고, 1976년까지 약 5만 어에 이르는 조선어어휘의 ‘다듬기’가 집성된다. 그리고 1977년 12월 10일에는 『다듬은 말』 1~4권이 편찬되고 1982년에 그중에서 약 4만 어휘를 개정한 『다듬은 말, 재검토한 용어』가 국어사정위원회에서 간행되었다.

‘지상토론’은 1973년 10월 28일 제554회를 끝으로 종료된다. ‘지상토론’의 첫 회 게재 시에는 연재에 대한 인사말이나 기사의 성격, 토론의 형식에 대해서 서술한 것과 비교하면 게재 종료 시에는 이번 회가 마지막 지상토론이 될 것에 대한 것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다. 게다가 마지막 원고를 쓴 인물도 그 원고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어떠한 이유로 돌연 ‘지상토론’이 중단된 것인지, 종료한 것인지에 대해 확증할 수 있는 사료는 없다. 지금까지 ‘지상토론’의 중단이유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상토론’의 종로의 배경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3.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내용 분석

‘지상토론’은 1966년부터 1967년까지는 1회에 2개의 원고분의 기사가 게재된 적도 있어서 총 원고 수는 575회가 된다. 앞의 <표 1>과 같이 원고의 종류를 구분하여 집계해보면 ‘독자의 의견’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지상토론’이라는 제목에 적합한 토론 내용이었던 점은 북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독자의견’에 게재된 내용이 전부 ‘다듬은 말’로 인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각 전문용어분과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제출된 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다듬어져 가는’ 조선어의 어휘를 보면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란, 단순히 위로부터의 언어순화 운동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조선어를 사용하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정서에도 관여하여 양성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었던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이라는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의 언어 정책에 시정의 사람들의 정서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시점으로 볼 때 ‘독자의 의견’은 당시 북한 사회의 언어생활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1966년 7월 9일자 ‘지상토론’의 제1회에는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조직하면서”라는 제목과 다음의 문장이 게재된다.

우리들은 누구나 알수 있는 쉬운 말을 하고 쉬운 글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묻혀있는 좋은 말을 찾아쓰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우리 말로 다듬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어사정위원회에서는 이 지상토론을 조직한다. 독자들은 다듬은 말이 마음에 드는가 안드는가, 마음에 안든다면 어떤 말로 다듬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우편으로 국어사정위원회나 본사에 보내되 직장, 직위, 이름, 나이를 밝혀서 보내주기 바란다. 아름다운 우리 말을 활짝 꽃피우며 더욱더 빛내기 위하여 모두다 이 토론에 참가하자.

이 문장은 제3회와 제36회에도 반복적으로 게재되는데 이 ‘지상토론’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가와 중요성에 대해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다. 인상적인 점은 조선어가 꽃을 피우는 식물에 비유되어 있다는 점

이다. ‘우리말’의 ‘다듬기’는 원래 일종의 비유를 거친 표현이고 조선어 문자의 뜻 그대로 읽으면 ‘다듬기’는 식물을 전정하는 행위, 즉 ‘손질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장미와 같은 식물이 ‘손질됨’에 따라 감상할 만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말’에서 ‘어려운’ 어휘의 ‘외래적’ 요소를 철저히 ‘손질됨=다듬어짐’(다듬은 말)의 의미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고 설명한 것이다. 북한에서 언어순화의 근본적인 발상법은 감정적인 배외 행위도 신어 창조에 의한 언어의 재구성이 아닌 언어를 다듬는 것으로 간소함을 추구하는 합리성과 빛나는 성과를 상상하는 이상주의 추구의 혼재였던 것이다.

제1회에서 출제된 어휘는 ‘출구·입구·유모차·노크·휴일·분무기·구축하다·두절되다·저락하다’이었다. 이들의 어휘는 비교적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어와 외래어로 판단된다. 언뜻 보면 마구잡이로 고른 어휘를 닦치는 대로 ‘다듬으려고’ 한 작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듬는 것’에 대한 각종 기법을 의도적으로 나열한 상당히 전략적인 어휘 선택이다. 여기에는 ‘출구·입구·유모차·노크·휴일·분무기·구축하다·두절되다·저락하다’의 각각 ‘다듬는 법’이 어떠한 이유로 제안되었는지를 순서대로 인용한다. 또한 북한의 언어 정책에 서 무엇이 ‘어려운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여 가시화하려고 하였다. ‘지상토론’의 대상 어휘는 원고에서는 두꺼운 글자로 표기되어 있고 하나의 어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당시 북한의 표기법 그대로 인용하였다.

[출구 · 입구]

‘출구’, ‘입구’는 정거장이나 극장 그 밖에 사람들이 많이 나드는 곳에 흔히 써 붙이는 말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쓰고 있다. 이 말을 ‘나가는

곳’, ‘들어가는 곳’으로 다듬으려 한다. 이에 따라 ‘출입구’는 ‘나드는 곳’으로, 출입문은 ‘나드는 문’으로 다듬어 쓸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단어들은 음운 형성의 지향이 강한 한자어를 고유어로 다듬으려고 하였다. 한자어로는 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만 조선어 음운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를 상상할 수 없는 어휘를 ‘듣고 무엇을 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다듬기’의 기본적인 전략이다. 듣자마자 바로 이해로 직결시킬 수 있는 언어의 명석성을 조선어에 부여하려고 했던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유모차]

‘유모차’는 젖먹이를 태워가지고 다니는 밀차의 하나다. 따라서 ‘애기차’, ‘아기차’, ‘어린이차’, ‘어린아이차’ 등으로 다듬을수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애기차’를 취하려 한다.

유모차도 위의 예와 같이 음원에서 용도를 상상할 수 없는 ‘유모’ 대신 ‘누구를 태우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자어인 ‘차’라는 말까지 바꾸려는 의도는 없는 듯하다.

[노크]

‘노크’는 ‘손기척’으로 다듬으려 한다. 우리 말로 ‘무엇이’ 있는줄을 알수 있게 하는 어떤 소리 같은것을 ‘기척’이라고 한다. 기침소리나 발자국소리를 내어 사람이 있는줄을 알 수 있게 하는 기척은 ‘인기척’이라고 한다. ‘노크’는 바로 손으로 하는 ‘기척’이므로 ‘손기척’이라고 다듬고자 한다.

이것은 외국어 음성을 전사해서 차용된 외래어를 조선어적인 발상으로부터 연상된 어휘로 바꾸려 하는 제안이다. 영어로 단순히 ‘치다’, ‘두드리다’라는 동작만을 나타내는 knock라는 어휘가 북한의 ‘다듬기’ 안에서 언급될 때 서양의 문을 개재하여 두 개의 공간을 상상시키는 상황 묘사의 어휘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조선 사회에 관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휴일]

‘공휴일’은 ‘쉬는날’이라고 다듬으려 한다. 공휴일이라는 말과 함께 ‘휴일’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휴일’이란 어떤 기관, 기업소나 상점들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로 쉬는 날을 말하는만큼 ‘공휴일’과 ‘휴일’은 다 ‘쉬는날’로 통일하여 다듬자는 것이다.

이것들은 사회 관습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그것에 맞는 어휘를 다듬기에 이용하려는 제안이다. 사용하는 말을 바꾸는 것은 사회를 바꾸는 것으로 이어지는 근대적인 언어 정책의 정신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례이다.

[분무기]

‘분무기’는 물이나 약 같은 것을 안개처럼 뿜어내는 기구를 이르는 말이므로 ‘뿜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뿜개’라는 말은 발음이 부드럽지 못하기때문에 음절을 하나 더 늘여서 ‘뿌무개’로 다듬으려 한다.

이 사례에서는 한자어의 의미를 지닌 고유어로 바꾸는 것이 전형적이지만,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하기 쉬운’, ‘쓰기

쉬운'의 관점에서 한 단계 더 거쳐 다듬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듣기 쉬운 말(칭각적인)'에 대한 배려이다. 북한의 언어순화의 특징 중 하나인 '듣기 쉬움'에 과도한 배려가 보이는 점이다. 이것은 '다듬어진' 말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어 정책이 상당히 지속적이고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구축하다]

'구축하다'는 '쫓아내다'와 '몰아내다'로 다듬으려 한다. '구축하다'라는 말은 '어떤 세력이나 력량을 쫓아내거나 몰아내다'라는 말인데 이 경우에 그 어느 한쪽 의미만으로 다듬기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두개의 다듬은 말을 다 쓰려고 한다.

[두절되다]

'두절되다'도 '끊어지다'와 '막히다'의 두가지로 다듬으려 한다. 교통 수단이나 통신이 '두절되다'라고 할 때 '소식이 끊어지다', '길이 끊어지다'라고 하지만 또 '길이 막히다', '소식이 막히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두가지를 다 쓰려고 한다.

위의 두 사례에서도 한자어로 이루어진 동사를 어떻게 다듬을지에 대한 전형적인 제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다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어의 핵심 부분을 조선어의 실현 용법 안에서 해부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결과로는 하나의 한자어가 복수의 조선어용법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락하다]

'저락하다'는 한자어 그대로 말하면 물건값이나 위신 같은 것이 '낮

게 떨어지다'라는 말인데 이런 경우에 '떨어진다'는것은 다 본디 위치보다 '낮게' 떨어지지 '높게' 떨어지는 현상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낮게'라는 말을 붙일것이 없이 '떨어지다'로 다듬으려 한다.

게다가 한자어 특유의 뜻이 비슷한 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선어 용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의 잉여성, 비합리적인 의미가 중복되는 것을 조선어로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한자어의 사대성의 하나이며 이것을 도려내고 잘 깎아내는 것이 '다듬는' 것의 본질이다. 이처럼 국어사정위원회에서 선택한 8개 어휘의 다듬기 제안에 대한 '독자'로부터의 반응 일부가 제11회 '지상토론'에 '독자로부터의 의견'에 잘 정리되어 있다.

[출구·입구에 대한 다듬기]

'출구'·'입구'를 '나가는 곳'·'들어가는 곳'으로 다듬는 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 (1) 길어서 쓰기 불편하고 하나의 단어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음감에 대한 거부
짧게 하는 안으로는 '출구'는 '나가는 문'의 의미를 지닌 '날문', '나가는 곳'의 의미로 '나는곳', '나는문', '날어귀' 등, '입구'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문'의 의미인 '들문', '드는문', '들어오는 곳'의 뜻인 '드는곳', '들어귀' 등의 의견이 모아졌다.
- (2) '나가는 곳'·'들어가는 곳'에서 '곳'의 쓰임이 적합하지 않다.
- (3) 다듬기 위해 사용된 말의 요소의 대안
'나가는 곳'·'들어가는 곳'은 '가는'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오는 곳', '들어오는 곳'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단어를 짧게 하려

는 의견은 매우 옳다. 하지만 지나치게 짧게 하면 귀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다. 대안으로는 ‘출구’를 ‘날문’, ‘입구’를 ‘들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노크에 대한 다듬기]

‘노크’를 ‘손기척’으로 다듬는 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1) 음감의 거부

‘기척’을 살리되 ‘손기척’으로 하는 것은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기척’으로 할 것, ‘인기척’을 그대로 사용할 것, ‘문기척’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

(2) 말을 사용할 때 상황묘사의 비공유

손을 쓰는 표현인데 ‘기척’에는 그 뜻을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손알림’, ‘손올림’, ‘손소리’, ‘손신호’, ‘손두드리기’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다.

(3) 원래 ‘노크’라는 말은 ‘똑똑’이라는 의성어라는 점을 생각한 어원에서 상상력을 이용한 안

내용은 안과 다른 안으로는 ‘두드림’, ‘문두드림’, ‘똑똑이’, ‘똑똑올림’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

(4) 다듬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와 찬성

‘노크’는 모두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쓸 것
‘노크’가 널리 쓰여도 우리말로 다듬는 것이 좋다. 보내진 의견 중에서 ‘문기척’이 ‘손기척’보다 좋다는 의견이 있다.

이처럼 몇 개의 말의 ‘다듬기’에 대한 제안에도 수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각각 자신들이 느낀 말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는 모

습은 ‘북한’이라는 국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과도한 중앙집권적’의 이미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지상토론’에서 다룬 어휘 전부가 이후에 공식적인 ‘다듬어진 말’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말 다듬기’라는 국가 프로젝트 자체가 ‘아래로부터’ 조선어를 다듬으려 했던 수없이 많은 노력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은 북한의 언어 정책 연구에서 제도사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중요한 국면을 제공할 것이다.

4. ‘지상토론’의 토론 내용에서 볼 수 있는 언어감각(구체적인 예를 제시)

이 절에서는 ‘지상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듬어진 말 이 아니라 토론의 과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북한 사회와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말’로 느꼈던 언어와 그 언어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끌어냈다. 기본적으로 ‘지상토론’의 원문은 그대로 인용하였고, 각 사례의 어미에는 게재 회를 기재하였다. 각 사례는 앞의 <표 1>에 표시한 분과위원회별로 나누었고, 사회의 광역에 걸쳐 ‘다듬기 방법’의 이념이 어떻게 침투하였는가를 명시하기로 했다.

(1) 일반어용어분과

* 명사·고유명사의 다듬기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늘 쓰는 말부터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말을 다듬는다고 하여 모든 단어를 하루이틀사이에 갑자기 다 고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먼저 우리모두가 생활에서 늘

쓰는 말부터 하나하나 다듬어나가야 한다.

대부분 → 거의·거의다, 소요량 → 소요되는 량·필요한 량, 용도 → 쓰
이는데·쓰임 [제301회]

흔히 선물로 보내는 벽시계나 거울 또는 책 같은데 ‘기증’이라고 쓰
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다듬어쓰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선물로
드린다는 뜻에서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내놓는다. (이
와 함께 ‘증’이라고 쓰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지
주고받는 말에서는 쓰지도 않으며 자리는 젊은 세대들은 더구나 잘 알
수도 없는 이런 한자음을 하나 써놓는것은 아무런 뜻도 줄수없다고 본
다. ‘증’을 쓸 자리에도 ‘드림’이란 말을 쓰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증정하다’란 말은 많은 경우에 ‘드리다’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본다.
애국렬사기념비에 꽃다발을 증정한다 → 애국렬사기념비에 꽃다발을
드린다. [제204회]

*동사 형용사의 다듬기에 대하여

‘말은 될수록 로동자, 농민이 알아들을수 있는, 그들자신이 쓰는 쉬
운 말로 해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될수록 어려운
말을 쓰지말고 로동자, 농민이 알수 있는 쉬운 우리 말을 써야 한다는것
을 가르치시었다.

부과되다 → 맡겨지다, 수호하다 → 지키다, 순회하다 → 돌다 [제302회]

‘당연하다’는 ‘그가 표창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에서 보는바와 같이
‘마땅하다’와 뜻이 거의 맞먹어떨어지는 말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옳다’와 맞아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말은 ‘마땅하다’라든가 ‘옳
다’로 쓰면 대체로 통하리라고 본다. ‘지당하다’는 그저 옳기나 마땅한
것이 아닌만큼 ‘아주’를 꼭 붙여야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다. ‘지당하

다’는 ‘당연하다’보다 강조하는 뜻이 더 있는만큼 필요하다면 그렇게 갈라쓸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제130회]

‘소비하다’는 ‘쓰다’, ‘씨버리다’ 또는 ‘없애다’와 같은 말로 다듬을수 있지 않을까 한다. ‘소비하다’와 뜻이 비슷한 ‘소모하다’도 역시 ‘없애다’로 다듬을수 있으리라고 본다. [제121회]

‘붕괴되다’는 물건이나 계획이 깨뜨러지거나 또는 사회제도가 무너지거나 할 때에 쓰이는 말이다. 그러므로 ‘무너지다’, ‘허물어지다’, ‘망가지다’ 등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싶다. [제121회]

‘유린하다’는 주로 권리·인격 등에 관하여 말할 때의 ‘짓밟는다’는 뜻이다. 글체에서 아직 적지 않게 쓰이고있으나 이것도 고유어 ‘짓밟다’를 그대로 쓰는것이 좋겠다고 본다. [제116회]

* 외래어

‘디자인’은 주로 산업미술에서 쓰이는 말인데 그림의 형태로 대상의 실체나 안을 보여 주는것을 말하므로 이 말은 ‘그림본’ 또는 ‘그림설계’로 다듬는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제534회]

흔히 달리는 경기를 할 때 신는, 바닥에 못 같은것이 달린 신을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 신은 ‘못신’으로 하자는 의견과 ‘사갈신’이라고 하자는 의견이 있다. 사갈이란 미끄러지지 않게 신바닥밑에 대는 못이 달린 물건을 말한다. [제273회]

‘남바링’도 어려운 외래어이므로 ‘번호기’라고 다듬어쓴적도 있는데 이번에 내놓은안 ‘번호찍개’가 더 알기 쉽고 좋다고 생각한다. [제277회]

배구에서 ‘드리블’은 한 경기자가 연속적으로 두번 이상 공을 다치거나 치는것을 말한다. 그래서 ‘드리블’은 두번 다쳤다는 뜻에서 ‘두번공’

으로 하거나 ‘두번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제113회]

‘나이프’는 주로 서양음식을 먹을 때 상에 놓고 쓰는 칼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칼’로 다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제86회]

‘에피소드’는 작품의 기본줄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그와 이리저리하게 관련되는 짧은 이야기를 말한다. 그런만큼 걸다리로 하는 이야기란 뜻에서 ‘결애기’로 다듬자는 의견이 있다. [제74회]

‘카브’는 ‘굽이돌이’, ‘굽이’라는 우리 말을 그대로 찾아쓰면 될 것이다. ‘카브길’은 ‘굽이돌이길’ 또는 ‘굽이길’로 ‘카브션’은 ‘굽이돌이선’ 또는 ‘굽이선’으로 할수 있을것이다. [제36회]

‘핸들’은 쉬운 우리 말 그대로 ‘손잡이’로 바꾸어쓸수 있을것이다. 레컨대 ‘자동차핸들’은 ‘자동차손잡이’로 될것이다. 한편 ‘손잡이’의 뜻이 넓으므로 핸들이 방향을 잡는 구실을 한다는 특징을 잡아서 ‘방향잡이’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따르면 ‘자동차핸들’은 ‘자동차방향잡이’로, ‘자전거핸들’은 ‘자전거방향잡이’로 될 것이다. [제36회]

* 일본어 발음 그대로 사용된 어휘

‘벤또’란 말은 두가지 뜻이 있다. 그 하나는 곡모양으로 만든 밥그릇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그 밥그릇에 담긴밥과 그릇 전체를 통털어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의 것을 가리킬 때는 ‘밥곽’으로, 뒤의 것을 가리킬 때에는 ‘곽밥’으로 바꾸어쓸수 있겠다고 본다. [제40회]

‘템뿌라’는 기름에 튀긴것이라 해서 흔히 ‘기름튀기’라고 말하고있는데 그대로 ‘기름튀기’로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기름튀개’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튀긴것’이라는 뜻보다도 먼저 ‘튀기는기구’라는 뜻으로 리해되기때문에 ‘개’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98회]

‘아지노모도’는 원래 우리 말이 아니다. 그래서 고유한 우리 말로 다

듬어쓰려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던 말이다. ‘아지노모도’는 반찬이나 국에 넣으면 맛이 나는것이므로 ‘맛난이’로 할수 있을것이다. 또한 맛을 내는 재료이므로 ‘맛감’으로 하지는 안, 맛을 더 돋우어준다는 특징을 살려서 ‘맛돋침’으로 하지는 안등 여러가지 안이 있다. 독자들의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제29회]

(2) 의학용어분과의 사례

의학부문에서 쓰는 말들가운데는 고유어와 한자말이 두체계를 이루어서 대중이 쓰는 말과 의사들이 쓰는 말이 다를뿐만아니라 대중들이 듣고도 전혀 알아들을수 없는 까다로운 한자말들도 적지 않다. 이런것들은 하루빨리 아름다운 우리말로 다듬어써야 할것이다. [제241회]

입원실에서 의사가 환자를 찾아 돌면서 한사람씩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것을 ‘회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병돌아보기’라고 다듬으려 한다. ‘회진을 나갔다’고 할 적에는 ‘병돌아보러나갔다’고 쓰면 될것이다. 의사가 병원밖의 다른곳으로 환자를 찾아가서 병을 보아주고 치료를 해주는것을 ‘왕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서병보기’라고 다듬을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러나 병보러 나갈 때 필요한 의료기구나 약품을 넣고가는 ‘왕진가방’은 ‘의사가방’이라고 다듬는것이 좋을것이다. [제242회]

‘척추골’은 ‘등뼈’로 다듬으려 한다. 우리 말에서 척추를 ‘사등뼈’라고 부르는 사투리도 있는만큼 ‘등뼈’로 하면 무리가 없다고 본다. [제3회]

‘사등뼈’라는 말이 말다듬기에서 쫓겨난 리유는 그것이 사투리라는 데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사투리는 전인민적으로 널리 통용되지 않는다는 하더라도 지방적으로 적지 않는 인민들이 옛날부터 써오고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고 어감이 좋은 것이라면 우리 인민들이 한사람도 써본일이 없는 새 말을 만들기도 다는 그 사투리를 올려쓰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될수있는데까지 새 말을 만들지 말고 있는 말을 찾아내고 죽어 들어가는 말을 살려 쓰자는 의견입니다. [제22회]

‘혈액순환’은 피가 심장에서 나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생리적 현상을 말한다. ‘혈액’을 ‘피’로 다듬어 쓰는 조건에서 ‘피순환’이라고 쓸수있으나, ‘피돌기’로 다듬어쓰는 것이 더 좋겠다고 본다. ‘혈액순환’에 대하여 ‘피돌기’ 또는 ‘피돌이’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혈액순환’을 ‘피돌기’로 다듬는다면 순환계통의 다음과 같은 말들도 함께 다듬게 될것이다.

대순환 → 큰(피)돌기, 소순환 → 작은(피)돌기, 체순환 → 몸(피)돌기, 폐순환 → 폐(피)돌기 [제352회]

병이 생긴 시기를 가르는 말의 한가지로서 ‘선천성’은 태어나기전에 가지고난 병을 이를 때에 쓰며 ‘후천성’은 태어난 다음에 만난 병을 가리키는 경우에 쓴다. 따라서 ‘선천성’은 ‘타고난’으로 하고 ‘후천성’은 ‘난뒤’라고 다듬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선천성질환’은 ‘타고난질환’으로 또는 ‘질환’을 ‘병’으로 쓴다면 ‘타고난병’으로 될것이다.

‘합병증’이란 하나의 질병에 관련하여서 일어나는 다른병증을 말하며 ‘후유증’은 한병을 앓고난 뒤에 남은 다른 병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합병증’은 ‘따라난병’, ‘후유증’은 ‘남은병’이라고 다듬으려 한다. [제162회]

일반적으로는 ‘비대하다’고 하면 몸이 살이 찌고 큰것을 말하나 의학에서 ‘심장비대’와 같이 쓰는 경우의 ‘비대’는 심장의 벽이나 살이 두꺼워지면서 커지는것을 말한다. 그리고 ‘확장’이란 ‘위확장’과 같이 벽은

두꺼워지지 않고 오히려 얇어지면서 늘어나는것을 말한다. 때문에 ‘비대’와 ‘확장’을 ‘커지기’와 ‘늘어나기’로 하자는것이다. [제136회]

‘두통’은 머리가 아픈 증세를 말하는데 배앓이, 귀앓이라는 말과 같이 ‘머리앓이’로 다듬어쓰려고 한다. [제34회]

‘초산’은 부인들이 아이를 처음 낳는 일을 말하는데 이것을 ‘첫애낳이’로 다듬으려 한다. 그러나 구체적문맥에 따라서는 이밖에 다른 표현도 있을수있다. 레컨대 ‘초산을 순조롭게 했다’는 ‘첫애낳이를 순조롭게 했다’고도 한다. 또한 ‘초산이었다’는 ‘첫아이였다’라고 하며 ‘초산했다’는 ‘첫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짐승의 경우에 ‘초산’을 쓰는것은 잘못이다. 이 경우에는 ‘첫배’, ‘첫배새끼’, ‘첫배를 낳다(까다)’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34회]

(3) 농학용어분과의 사례

“말은 될수록 로동자, 농민이 알아들을수 있는, 그들자신이 쓰는 쉬운 말로 해야 합니다”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농학용어를 농민들자신이 잘 아는 훌륭한 우리 말로 다듬기 위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기 바란다. [제176회]

농사에서 소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좋은 씨앗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육종 및 채종 관계의 용어를 토론에 내놓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과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알곡을 정당 500키로그램씩 더 내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일떠선 전국의 협동농민들과 더불어 농학용어를 인민들의 마음에 들게 잘 다듬는데 모두다 적극 참가해주시기 바란다. [제175회]

‘산란’을 ‘알낳이’(새짐승의 경우)라고 다듬은만큼 ‘산란계’는 ‘알낳

이답'으로 할수 있을것이다. '알냥는답'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제 181회]

육중부문에서 흔히 쓰는 '수분'이란 암꽃술이 수꽃술의 꽃가루를 받는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꽃가루받이'로 다듬을수 있겠다고 본다. 이에 기초하여 '수분'과 관련한 말과 다음과 같이 다듬을수 있을것이다. '인공수분'은 '꽃가루묻히기', '혼합화분수분'은 '섞인 꽃가루묻히기', '자화수분'은 '제꽃가루받이', '타화수분'은 '다른꽃가루받이'로 한다. [제 176회]

(4) 자연과학용어분과의 사례

어렵고 쓰기 어색한 한자말을 버리고 알기 쉽고 아름다운 우리 말을 찾아쓰는것은 오늘 누구나 다 관심을 돌려야 할 절실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한자를 쓰지 않는 형편에서 한자에서 온 과학용어들을 계속 쓰는것으로 하여 생기는 여러가지 불편과 혼란을 생각하면 우리 말을 다듬는 일은 그 누구도 소홀히 할수 없다고 보면서 물리용어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제41회]

등식에 대해서 쓰는 '우변', '좌변'이라는 말은 '오른쪽', '왼쪽'으로 다듬어쓰려 한다. 그리고 향의 부호를 바꾸어 한번에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향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흔히 쓰는 말로 '향을 옮긴다'로 다듬어쓰려 한다. 이미 토론에 나간대로 '향'을 '마디'로 다듬는다면 '마디를 옮긴다'로 될 것이다. [제282회]

'시각'은 '보는 각'으로 '명시거리'는 '잘보임거리'로 다듬으려고 한다. 사람의 한쪽눈과 물체의 량쪽끝을 각각 잇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시각'이라고 하였는데 그 물체의 크기는 시각의 크기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이것은 결국 물체를 보는 각이다. 또 물체를 가장 똑똑히 보기 위

해서는 그것을 눈에서 부터 알맞는 거리에 놓아야 하며 이것을 ‘명시거리’라고 써왔으므로 이것은 ‘잘보임거리’로 다듬을수 있다고 본다. [제 198회]

천문학에서 쓰는 ‘식’이라는 말은 ‘가림’으로 다듬자는 의견이 있다. ‘식’이라는 말은 크게 두가지로 쓰인다. 그 하나는 해나항성이 가리워지는 것처럼 천체에서 오는 빛의 길목에 다른 천체, 즉 달이나 행성 같은 것이 끼여들기 때문에 해나 항성의 전체나 또는 그 한 부분이 가리워지는 경우다. ‘식’이라고 불리우는것에서 다른 하나는 월식과 같이 태양에서 달로 가는 빛의 길목에 지구가 끼여들기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월식의 경우에는 달이 가리워지는것이 아니라 달이 지구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서 빛을 받지 못하여 어두워질뿐이므로 지구상에서 살필 때 달이 가리워지는것은 아니며 사실은 달에로 가는 해빛이 지구에 막히는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식’을 그대로 ‘가림’으로 쓰자는것이다. 이와 같이 ‘식’을 ‘가림’으로 다듬는다면 ‘일식’은 ‘해가림’으로, ‘월식’은 ‘달가림’으로 할 수 있겠다는것이다. 그리고 ‘부분식’은 한쪽만 가리워질 때를 말하므로 ‘군데가림’이나 ‘한쪽가림’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군데가림이라 하면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가리워지는 것을 말하는것 같아서 ‘한쪽가림’이 내용으로는 더 알맞겠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른다면 ‘부분일식’은 ‘해한쪽가림’으로, ‘부분월식’은 ‘달한쪽가림’으로 할수 있을것이다. 이것과 대조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완전식’또는 ‘개기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모두다 가리워진다는 뜻에서 ‘다가림’으로 다듬어쓰자는 의견이 있다. [제101회]

(5) 경공업용어분과의 사례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학습을 밀고나가는데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는것은 아주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말을 잘 다듬는 문제는 기술문화혁명을 다그치는데서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제231회]

분과에서는 ‘유’나 ‘지방’이나 일반적으로는 다같이 ‘기름’으로 쓰여 이 말을 꼭 갈라서 써야 할 때는 ‘유’는 ‘물기름’, ‘지방’은 ‘덩이기름’으로 다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토론에 붙인다. ‘지질’은 기름성분의 물질을 가리키므로 ‘기름물질’로 다듬으려 한다. [제376회]

“여성들의 부업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식료가공공업은 3대기술혁명의 하나인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언어는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인만큼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이 부분의 용어를 다듬는데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이것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제375회]

‘과육과즙(혼탁즙)’은 과일의 살까지 으깨여 즙에 섞은 것이다. ‘으깬 과일즙’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으깨다’라는 말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흐린과일즙’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마치 질이 나쁜것처럼 느껴지는 부족점이 있다. 독자들의 의견을 기다린다. [제375회]

몇분동안에 손쉽게 밥이나 국수를 해먹을수 있도록 미리 익혀서 기술적으로 말린 쌀이나 국수를 각각 ‘즉석밥’, ‘즉석건면’과 같은 어색한 한자말을 만들어서 부르고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처리한 식료품일반을 ‘즉석식품’이라고 하고있다. 이런 말은 더 퍼지기전에 잘 다듬어야한다. 이런 식료품들은 손쉽게 해먹을 수 있도록 미리 익혀놓았다는 것과 오래 보관할수 있게 말려놓았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또한 아직

음식자체는 아니고 음식을 만들어먹을 직전의 ‘감’이라는것이 특징적이
다. 널리 토론하여 이 말들을 다듬을 좋은 말을 만들어 보내주기 바란다.
[제375회]

(6) 지질광업용어분과 사례

과학기술용어에서 어렵과 딱딱한 한자말을 알기 쉽게 다듬는 문제는
우리 말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는 면에서와 함께 과학기술의 보급과
발전에도 큰 의의를 가진다. 한자말이란 뜻글자로 된 말이기때문에 한
자를 모르고는 그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지질부문
용어에서 ‘시편’, ‘마편’, ‘박편’과 같은 말들은 서로 비슷비슷해서 그
뜻이 쉬갈리기 쉽다. 그러므로 한자말을 되도록 고유한 우리 말로 다듬
어서 누구에게나 알기 쉽고 쉬갈리지 않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일
이다. [제218회]

‘화산’이란 땅에서 뿜어나온 응암, 화산회, 가스 등의 물질로 이루어
진 산을 말하는데 그 물질들을 뿜는 현상이 마치 불을 뿜어내는것과
같은 경우가 많으므로 ‘불산’이라고 다듬자는 의견이다. ‘활화산’은 뿜
는 현상이 진행되고있는 화산을 말하므로 ‘산불산’이라고 할수 있겠
고 본다. ‘휴화산’은 지난 시기 한때 뿜었거나 또는 폭발한 일이 있었으
나 지금은 뿜지 않으며 앞으로는 다시 뿜을수 있는 화산을 말하므로
‘쉬는불산’으로 하자고 한다. 백두산이 바로 이에 속한다. ‘사화산’은
화산활동이 완전히 끝난 화산을 이르므로 ‘죽은 불산’으로 할수 있겠
는것이다. [제218회]

‘침식’에 대해서는 이미 ‘물깎기’로 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
이 토론에 나갔다. 그런데 ‘침식’과 관련하여 몇마디 용어를 더 토론에
붙이려고 한다. ‘침식’에는 비나 강물 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바람, 빙

하 또는 화학적작용 등으로 침식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우식’이란 비가 올 때 흐르는 비물의 힘에 의해서 지구겉면이 깎이는 현상을 말하므로 ‘비물깎기’라고 하지는 의견이다. ‘풍식’이란 바람이 불어서 지구겉면을 깎거나 부스러뜨리는 현상을 말하므로 ‘바람깎기’라고 하지는 것이다. ‘빙식’이란 빙하가 흐를 때 지층을 깎는 현상을 말하므로 ‘얼음깎기’로 할수 있겠다고 본다. [제218회]

‘응회암’은 화산이 터질때 뿜어나온 재가 쌓여 굳어져서 이루어진 돌을 말한다. ‘응회암’의 조성은 화산재이므로 ‘재돌’이라고 다듬지는 의견이다. 우리는 ‘응회암’에서 한자말이 얼마나 어렵고 또 쉬갈리기 쉬운가 하는것을 알 수 있다. ‘응회암’을 글자대로 새겨보면 ‘재가 영긴 바위’라는 뜻으로 볼수도 있고 또 ‘석회가 영긴 바위’라는 뜻으로 볼수도 있다. ‘회’라고 하면 ‘재’라는 뜻도 있고 ‘석회’라는 뜻도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자말을 우리 고유말로 다듬는다는 것은 우리말을 주체성있게 발달시키는 면에서뿐만아니라 어느 모로 보나 실로 의의가 큰것이다. [제219회]

(7) 운수용어분과 사례

철도운수부문에서 쓰는 적지 않은 말마디들을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쓰는것이 리해하는데도 좋을뿐만 아니라 우리 말을 주체적으로 발달시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우리는 이 부문에서 쓸데 없이 쓰는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하루빨리 다듬어 이 부문에서도 우리 말이 활짝 꽃피도록 해야하리라고 생각한다. [제160회]

차를 타는것을 ‘승차’라고 하며 철도일꾼들이 차를 타고 근무하는것은 ‘승무’라고 하는데 이 말들은 모두 ‘차타기’라고 다듬어써도 되리라고 생각한다. [제236회]

‘입장권’은 일반적으로는 ‘들어가는 표’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철도부 문에서는 손님을 마중하거나 배례기 위하여 역의 구내로 들어갈 때 쓰는 표를 말한다. 이 말을 ‘역안표’라고 다듬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이 있다. [제236회]

꼬리표 같은데서 ‘~역발’, ‘~역착’이라고 쓴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역에서’, ‘~역까지’라고 할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역이름과 함께 쓰면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평양역발 → 평양역에서 [제350회]

‘휴대품’이란 까다롭고 어려운 이 말은 ‘취대품’이라고 잘못 발음하여쓰는 일도 있는데 우리 말로 알기 쉽게 ‘몸짐’이라고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제236회]

(8) 생물학용어분과 사례

‘조류’는 ‘새류’로 다듬을 수 있겠다고 본다. ‘조류’란 말은 식물의 ‘조류’, ‘마름류’나 바다물의 흐름을 말하는 ‘조류’와도 섞갈리기가 쉬운 말인데 우리 말을 살려서 날아다니는 새를 말하는 ‘조류’는 ‘새류’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알기도 쉽고 부르기도 좋은 우리 말을 두고 왜 어려운 한자말을 쓰겠는가. ‘어류’는 ‘물고기류’로 할수 있겠다. [제224회]

(9) 체육용어분과 사례

육상경기에서는 달리는것을 ‘100미터질주’, ‘최종질주’와 같이 ‘질주’라고 말하고있는데 이것은 내용 그대로 ‘달리기’라고 다듬는것이 좋겠다. ‘최종질주’란 일정한 거리를 달릴 때 마감부분에 가서, 있는 힘을 다 내여 달리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마감달리기’라고 다듬으려 한다. [제273회]

(10) 금속용어분과 사례

학술용어라고 하면 오직 그 부문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신비스러운 말처럼 생각하던 지난날의 그릇된 견해를 우리는 완전히 가시여버리고 쉽고 부드러운 고유한 우리 말로 학술용어들을 대담하게 다듬어야하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제211회]

‘랭각’은 바로 ‘식히’는 것이기때문에 ‘식힘’이라고 하려 한다. 그러나 랭각방법들에서 쓰이는 말인 ‘서랭’, ‘급랭’, ‘예랭’도 여기에 따라 들어야 할 것이다. 느리게 식히는것이 ‘서랭’이며 빨리 식히는것이 ‘급랭’이며 애벌 식히거나 미리 식히는것이 ‘예랭’이다. 그러므로 ‘서랭’은 ‘느린식힘’, ‘급랭’은 ‘빨리식힘’, ‘예랭’은 ‘애벌식힘’이라고 다듬으려 한다. 그러면 ‘급랭장치’는 ‘빨리식힘장치’로 된다. 그러나 ‘급랭하다’라는 말은 ‘빨리 식힘하다’라고 할것이 아니라 ‘빨리 식히다’, ‘서랭하다’는 ‘느리게 식히다’, ‘예랭하다’는 ‘애벌 식히다’라고 써야 할 것이다. [제4회]

‘가탄’이란 강철에 들어있는 탄소가 요구되는 량보다 적을 때 탄소를 더 넣어주는 일을 말하므로 ‘탄소넣기’라고 하지는 의견이다. ‘가탄제’란 가탄할 때 탄소를 더 넣어주기 위한 감을 말하므로 ‘더탄감’으로 하면 어떨가 한다. 그런데 ‘가탄’을 ‘탄소넣기’로 한다면 ‘가탄제’도 이와 체계를 맞추어 ‘탄소넣기감’이라고 다듬는것이 낫겠다는 의견도 있다. [제188회]

(11) 기계용어분과 사례

인민들이 대대로 써오는 아름다운 우리 말을 두고 딱딱하고 어색한 새로운 한자말을 만들어쓸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되도록 고유한 우리 말 어근으로 말마디를 만들어 우리 말을 주체성있게 발전시켜

야 한다. [제117회]

‘살포기’는 두엄이나, 약물, 약가루 따위를 논밭에 뿌리는 기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뿌리개’로 다듬는 것이 어떨가 한다. [제117회]

논밭에서 가을걷이를 하는 ‘수확기’는 낱알을 거두어들이는 기계이므로 ‘거둬기’라고 할수 있겠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감자수확기’, ‘아마수확기’, ‘맥류수확기’ 등은 각각 ‘감자거둬기’, ‘아마거둬기’, ‘밀보리거둬기’로 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17회]

(12) 건설수리용어분과 사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며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기본건설부문앞에 방대한 과업이 나선다. 우리는 영예로운 이 과업을 훌륭히 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해내고야 말것이다. 이렇게 기본건설을 다그치는 과정에 이 부문의 용어들도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다듬음으로써 우리 당의 언어정책을 이 부문에서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할것이다. [제151회]

‘철근’이란 말은 널리 쓰이여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써야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철근’이 큰 내용을 가진 복잡한것도 아니며 흔히 콘크리트속에 넣는 쇠막대를 가리키는것이다. 콘크리트에 쇠막대를 넣은것이 마치 심줄과 같기때문에 이 점을 따서 ‘쇠심’으로 다듬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쓰이는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반적으로 쇠막대를 ‘철근’이라고 하며 ‘쇠심’이란 말이 잘 안겨오지 않으니 ‘쇠막대’란 말을 줄여서 ‘쇠대’로 하는 것이 어떨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다. [제151회]

(13) 사회과학용어분과 사례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온다’, ‘집에 간다’, ‘학교에 다닌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학교에서는 ‘등교한다’, ‘하교한다’와 같은 한자말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쓰게 되니까 이런 말이 자꾸 새끼를 쳐서 ‘등교생’이요, ‘미등교생’이요 하는 말도 쓰이게 된다. 무엇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계속 두고 써야 하겠는가? 이런 말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쓸수 있다고 본다.

등교하다→학교에 가다. 학교에 오다, 하교하다→집에 가다, 등하교하다→학교에 다니다, 등하교시→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쓰는 말에는 ‘등교생’, ‘미등교생’과 같이 말에 ‘~생’을 붙인 말이 여러개 있다. 이런 말도 될수 있는대로 우리 말로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말들에 대한 다듬을 안을 토론에 내놓는다.

등교생→(학교)온 학생, 미등교생→(학교)아니 온 학생, 전입생→(옮겨)받는 학생, 전출생→(옮겨)보낸 학생, 통학생→집에서 다니는 학생, 외박생→밖에서 다니는 학생, 잔류생→남은 학생, 신입생→새 학생

‘통학생’과 ‘외박생’의 안은 너무 길어서 양식같은것에서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것이라고 생각된다. 짧고도 좋은 말을 생각하여 보내주기 바란다. [제296회]

(14) 수산해양용어분과 사례

‘한류’는 찬물이 수평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찬물흐름’으로 다듬을수 있겠다고 본다. 이 말을 ‘찬흐름’으로 하지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찬바다물이 떠와 같이 길게 뻗어 흐르는 줄기를 의미하는

‘랭수대’는 ‘찬물줄기’로 다듬자는 의견이다. 이와 반대로 ‘난류’는 더운물이 흐르는 것을 의미하기때문에 ‘더운물흐름’으로 다듬고 ‘온수대’는 ‘더운물줄기’로 다듬으려고 한다. ‘난류’를 ‘더운흐름’으로 다듬자는 의견도 있다. [제268회]

‘홍수’는 ‘큰물’이란 우리 말을 찾아쓰려 한다. 그것은 홍수라는 말대신에 큰물이 이미 널리 쓰이고있기때문에 바꾸어써도 뜻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제30회]

‘하천류’는 ‘강흐름’으로 다듬으려 한다.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강에서 물이 흐르는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강물흐름’으로 할수 있겠으나 보통 ‘강이 흐른다’라고 말하므로 ‘물’자를 빼버리고 그냥 ‘강흐름’으로 하는 것이 짧아서 좋을것 같다. 이것과 관련되는 말들인 ‘년류량’은 ‘한해흐름량’, ‘실류량’은 ‘실지흐름량’으로 다듬으려 한다. [제30회]

(15) 문학예술용어분과 사례

‘음구’는 음역의 한 부분, 즉 높거나 낮은 음들이 차지하는 부분을 말하는 만큼 ‘소리목’으로 하려 한다. 이것은 ‘소리너비에서 차지하는 대목’이라는 뜻으로 다듬은것이다. 악기나 사람의 소리에는 ‘고음구, 중음구, 저음구’ 등의 갈래가 있는데 이것은 ‘높은목, 가운데목, 낮은목’으로 하려 한다. ‘최고 음구, 최저 음구’는 ‘맨 높은목, 맨 낮은목’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맨’은 ‘맨앞, 맨뒤, 맨끝’과 같이 명사하고만 어울릴뿐만아니라 이것보다 더 높거나 낮은목은 없기때문에 ‘더높은목, 더낮은목’으로 하려 한다. [제10회]

‘타현악기’를 ‘두드림악기’로 다듬자는 안에 대하여 ‘치는줄악기’로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런 의견의 근거로는 양금과 같은 악기만이 아니라 피아노같은 악기들도 다 친다고 말하고 있다는것

을 들고있다. 그리고 ‘두드림줄악기’는 말마디가 길뿐만 아니라 망탕 친다는 느낌을 주기때문에 좋지 않겠다는것이다. 이밖에도 ‘타악기’를 ‘칠악기’로 하기보다는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하여 ‘채악기’로, ‘유틀타악기’를 ‘여러(가지)소리채악기’로, ‘무릐타악기’를 ‘한(가지)소리채악기’로 다듬어쓰자는 의견도 들어왔다. [제274회]

(16) 전기체신용어분과 사례

‘보호피복’이란 전기줄이나 거기에 씌운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씌운 물질을 말한다. 레를 들면 전력케블에서 납겹질과 강철띠를 보호하기 위하여 황마에 피치 같은 것을 먹여서 씌운것이 그런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호씌우개’로 다듬으면 어떨가 한다. [제539회]

어떤 도체에 능히 흘러보낼수 있는 가장 센 전류를 ‘허용전류’라 한다. 이것은 결국 그 도체가 능히 견디어내는 가장 큰 전류인만큼 ‘견딤전류’로 다듬으면 어떨가 한다. ‘용단전류’란 어떤 도체를 녹이어서 끊 어지게 할만큼의 센 전류를 말하므로 이것은 ‘녹임전류’로 다듬을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제539회]

(17) 상품이름용어분과 사례

‘방안지’를 ‘모눈종이’로 다듬자는데 대하여 ‘모눈종이’라고 하는것도 좋기는 하지만 더 뚜렷하게는 ‘네모눈종이’로 하는것이 알기 쉬워서 좋겠다. [제277회]

‘색’이란 말과 ‘빛’이란 말은 처음에 제기했던것과 같이 둘 다 쓰는것이 좋겠지만 학생들이 쓰는 크레온에다는 어느 하나로 통일해쓰는것이 좋겠다는것이다. 그리고 레를 들어 ‘적색’을 ‘붉은색’이라고 할수도 있고 ‘빨간색’이라고 할수도 있겠으나 이것도 크레온의 색깔을 적을 때는

미술부문과도 련계를 지어 전국적으로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것이나 다 통일된 색이름을 주도록 해야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제216회]

(18) 립학용어분과 사례

‘락엽’은 주로 ‘떨어진 잎’을 나타내므로 ‘떨어진 잎’이라고 할수 있지만 나무잎이나 꽃에 대해서는 ‘지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므로 ‘진잎’이라고 써도 좋다고 본다. ‘락엽지다’라는 말은 때에 따라서 ‘가랑잎이 지다’라고 할수 있다. [제32회]

찬바람이나 비바람이 부는 곳에서 일정한 시설물을 보호하는 숲을 ‘방풍림’이라 하며 겨울에 바람에 날리는 눈으로부터 철길이나 자동차길 등을 보호하는 숲을 ‘방설림’이라한다. 이것들을 ‘바람막이숲’, ‘눈막이숲’으로 각각 다듬으려고 한다. 산림을 해치는 송충이와 같은 벌레를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해당 벌레들이 먹을수 없는 나무들을 심는데 이숲을 ‘방충림’이라 하며, 산불을 막기 위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가래나무와 같은 나무종류들을 심는것을 ‘방화림’이라 한다. 이것도 ‘벌레막이숲’, ‘산불막이숲’으로 각각 다듬으려고 한다. [제26회]

립학부문에서는 살아있는 나무를 ‘수목’이라 한다. ‘수목’은 우리 말로 ‘나무’라고 다듬어쓸수 있겠다고 본다. 그런데 ‘수목’을 ‘나무’라고만 하면 산에 살아서있는 나무와 베였거나 썩어서 다듬어놓은 나무와 섞갈릴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실지 일반생활에서 우리는 그 어느쪽이나 다 ‘나무’라고 하고있으며 또 말이나 글에서도 앞뒤관계로 미루어 그 차이는 알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우리는 ‘수목을 벤다’나 ‘수목을 가꾼다’, ‘수목을 심는다’라는 말은 쓰지 않으며 이런 때에도 다 ‘나무’라고 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런 한자말을 그냥 뒤두는 것은 우리 말의 옳은 발달을 가로막는것밖에 안된다. 나무의 종류를 이

르는 ‘수종’이라는 말은 ‘나무종’ 또는 ‘나무종류’로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나무의 종류로 이루어졌는가를 이르는 ‘수종구성’이란 말은 ‘나무종이루기’로 다듬을 수 있겠다는 의견이다. [제122회]

5.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의도

이상과 같이 사례 열거를 통해서 통감할 수 있는 것은 각 사례에서 제시된 말과 함께 몇 번이나 반복되는 ‘알기 쉬운 말’에 대한 추구이다. 마치 ‘알기 쉬운 말’은 조선어에 차용되고 있는 한자어에 숨겨져 있다고 호소하듯 하나의 어휘가 해부되고 그에 따라 ‘좋은지’, ‘좋지 않은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내려진다. ‘우리말’을 다듬는 것은 ‘알기 쉬운 말’에 대한 과잉적인 추구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착을 김일성 제2차 교시에서는 ‘섬멸전’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체 인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관련되어있는 것만큼 주관적 욕망만 가지고 감싸니아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단번에 많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섬멸전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고쳐나가는 하겠습니까. 3)

이와 같이 국가행정의 지도부로부터 ‘점차적인 섬멸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에 북한의 국어순화운동의 현장에는 사회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극히 개인적인 언어 세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다성적인

3) 김일성 제2차 교시,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기 살려나갈데 대하여”(1966.5.14).

논의의 장이 완성된 것이다. 거기에서 생성된 것은 철저한 언어적 평등의 이념이다. ‘우리말’이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알기 쉬운’ 언어인 것 역시 김일성교시에 따라 절대적 사명으로 ‘사전(事前)’에 정식화되어 있었다.

말을 얼마씩 계획적으로 고치고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을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말들을 잘 다듬어 파악하는 용어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파악이 없는 것을 내보내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본래의 말을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아주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⁴⁾

그러나 북한의 철저한 언어적 평등의 이념이 단순히 ‘위로부터’ 내려졌다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서는 안 된다. 경공업용어분과의 각 사례를 본 것처럼 북한 사회에서는 가정과 여성과의 관계를 근본부터 바꾸려 했던 선진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정비와 동조관계에 있다. ‘여성의 가사를 줄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업은 식료가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지도부의 건국이념은 법률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평등했던 것이다. 이 점으로 보아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에서 모색한 ‘평등’하고 ‘알기 쉬운’ 언어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생각해야 한다.

제204회의 ‘증정’의 다듬기 사례에서처럼 ‘실지 주고받는 말에서는 쓰지도 않으며 자라는 젊은 세대들은 더구나 잘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자음을 하나 써놓는 것은 아무런 뜻도 줄 수 없다고 본다’고 단언한

4) 위의 글.

것처럼 한자어나 외래어는 무슨 이유로 모르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들어도 모른다는 자가당착적인 답변에는 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어에 차용된 (주로) 한자어의 음운과 의미와의 괴리가 한자표기 폐지를 위한 결정적 요소가 되어버린 것에 틀림없다. 한자어는 한자의 ‘표의문자’의 기능을 전경화한 어휘이고 글자 자체를 표기하고 읽는 것으로 언어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해방 후 언어 정책의 결과 북한의 조선어 표기법이 ‘이상적 표의문자’로 보급된 ‘우리글’로만 쓰려고 했을 때 ‘알기 쉬움’의 기준은 ‘들었을 때 음운이 말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이것 하나로 집약되었다. 이 ‘지상토론’의 텍스트를 분석할 때 빈번히 볼 수 있는 표현은 ‘귀에 익숙하지 않다’ 또는 ‘귀에 거슬린다’이다. 듣는 사람에게 ‘알기 쉬운 말’이 아닌 것은 ‘모르는 한자음’으로 들리는 한자어였던 것이다.

조선어의 한자어 해부와 고유어 다듬기는 부차적으로 학술적 전문용어의 벽을 무너뜨리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것’을 중심으로 한 ‘알기 쉬움’과 ‘평등’을 가져왔다. 그러나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언어표준화의 이면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일일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귀에 거슬리지 않는지, 알아듣기 쉬운 말인지’를 물어보는 ‘다듬는 방법’에는 어쩔 수 없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장기간에 걸친 ‘지상토론’과 거기에 개인적인 언어감각을 공유한 ‘인민’들은 어쩌면 수신기 조정과 같이 언어를 조정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국어순화운동’은 대중을 ‘주체’로 자발적인 참여를 대대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아래로부터’의 언어운동의 모습으로 가장하는 것이 통치체제의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문자를 읽는 말’인 한자어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말’인 고유어를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언어순화 정책은 북한의 ‘국어순화운동’에서 북한 사람들은 언어 사용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언어 정책의 ‘객체’로서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6. 결론

북한에서 ‘국어순화운동’이란 조선어에서 한자어를 되도록 간소한 고유어로 ‘다듬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일본어에서 차용된 언어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조선어 말살 정책’의 기억이 역사적 경험으로도 개인의 체험으로도 기억되고 있는 1960년에 ‘고유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래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언어 발전의 필연적 요구에 응하여 생겨난 말이 아니라 일본 식민지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넓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라고 단정하는 김일성의 발언에 계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공감감이 있었던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공통의 시대 경험(‘조선어 말살 정책’)에서 발생한 일종의 언어적 내셔널리즘을 계속 자극하면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한 『로동신문』의 ‘지상토론’에 폭발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일반 독자들로부터의 반향을 일으킨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인민’을 언어로부터 창조하려고 한 ‘위로부터’의 의지와 누구든지 자신들의 말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자유를 느껴왔던 사람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의지가 합쳐져 형성된 언어적 유토피아의 탄생의 순간이었다고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상토론’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것’을 끊임없이 강

조해은 ‘문화어’를 창조하는 중요한 계기였던 점에 대해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을 가져다 준 ‘듣고 알기 쉬운’ 언어의 창조는 ‘이해할 수 없다’는 선택지를 미리 봉쇄한 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언어의 탄생이었던 것이다. 주체로서의 ‘인민’이 성립하기 이전의 단계로부터 ‘인민’이 국가의 주체로 자리매김한 북한 사회에서 정치원리적 ‘위정자와 비위정자’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효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언어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정치의 최전선에 ‘자발적으로’ 동원된 사회의 탄생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은 ‘국어순화운동’을 정치사상적 측면으로부터 추진된 ‘문화어’운동과 그 원안으로의 기능을 한 ‘지상토론’의 성과가 과거의 ‘문맹퇴치운동’이나 ‘한자폐지’와 비교하여 대대적으로 선전되지 않아 보기 힘든 이유도 설명해주고 있는 듯하다. 김일성은 제2차 교시에서 ‘우리말 다듬기’가 진전하는 방법을 ‘누에가 뽕 먹듯이 점차 먹어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은유는 알긋기도 하지만 정확하기도 하다. 고유어로 다듬어야 한다고 제시된 5만 어에 이르는 어휘를 모두 먹어버리고 그 성과의 반 정도를 배설하는 누에가 일제히 ‘아름다운’ 고치를 만들어냈을 때 그 고치에서 만들어진 견사가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누에로부터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질문인 것이다.

1960년대의 ‘국어순화운동’ 및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에서 고유어로의 ‘다듬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어나 외래어에서 다듬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 출판된 『조선어어휘통계학』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고빈도명사구성에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는 인민들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휘이고 우리

인민의 일반적 생활면모, 즉 생활세태적인 것, 사회정치적인 것, 경제 문화적인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빈도 출현 명사에 속하는 어휘 20개를 순서대로 보면, ‘~것, 인민, 사람, 말, 당, 혁명, 나라, 수(좋은~), 투쟁, 때, 우(책상~에), 일, 앞, 힘, 눈(~과 귀), 생활, 놈, 건설, 동무, 집’이다. 이 중에서 ‘인민, 당, 혁명, 투쟁, 생활, 건설, 동무’의 어원은 한자어이지만 완전히 토착화된 말이기 때문에 인민 생활 속에 스며든 말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 즉 인민 생활 속에서 ‘익숙하고’, ‘토착화’된 한자어의 경우 명사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듬는’ 힘은 파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지상토론’의 과정을 검증하면 알 수 있듯이 많은 독자가 자신의 언어적 감정을 보여주었고 노골적이라고도 생각할 만큼 기발한 대체안을 추렴하여 만들어진 ‘우리말’은 본래의 ‘익숙함’과 ‘토착화’ 등의 쉬운 분석어를 접근시키지 않는 언어적인 숭고함을 찾는 노력이었던 것이다.

‘우리말’의 창조에 매진하는 『로동신문』에는 ‘우리말’을 지도하는 김일성을 칭하기 위하여 ‘친애하는 김일성 동지’, ‘위대한 김일성 동지’,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 등의 무수한 말이 문구를 장식하고 있다. ‘지상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친애하는’은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위대한’은 ‘우수한, 대단한, 훌륭한’ 등으로 다듬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가 ‘교시한’ 언어로는 그가 ‘가르쳐 주신’의 말이 ‘좋은 말’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평등’하게 조선어의 본래의 모습으로 다듬었으면서 남겨진 한자어의 성역은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의 영역이었다. 김일성의 말은 이 현실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다.

만일 ‘지하투쟁’이란 말을 ‘땅속투쟁’이라고 고치거나 ‘평양은 나의 심장’이라는 말을 ‘평양은 나의 엄통’이라고 고치려고 해서 안될 것입니다. 이런 한자말까지 모조리 없애버린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에 큰 혼란이 일어날수 있습니다.’⁵⁾

북한의 ‘국어순화운동’의 최대의 문제는 이와 같은 어휘 선택에서 ‘평등 속의 불평등’임에 틀림없다. 사람들을 민족 언어에 대한 열정을 북돋운 숭고한 ‘우리말’의 탐구는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사회주의국가의 정치 중심적인 치환 불가능한 한자어를 보존하기 위한 언어적 통제 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 접수: 2월 17일 / 수정: 3월 22일 / 채택: 3월 29일

5) 위의 글.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국어사정위원회, 『다듬은 말』(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박상훈 외, 『우리나라에서의 어휘 정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박재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에 대한 연구』(평양: 사회과학원, 1999).

사회과학출판사, 『조선어어휘통계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언어학연구실, 『조선 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 발달한 우리 민족어』(평양: 과학원출판사, 1962).

2) 논문

김남수, “학술용어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조선어학』, 1964년 1호(1964).

리근영, “올해 말다듬기 지상토론에 더 많이 참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어학습』, 1호(1972).

3) 기타 자료

김일성 제1차 교시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김일성 제2차 교시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

『로동신문』, 1966년 7월 3일~1973년 10월 28일.

2. 국내 자료

김석향,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새국어생활』, 제15권(2005).

김허수, “북한에서 보는 ‘조선어’에 대한 일반언어학적 해석에 관하여,” 『동방학지』(1996).

전수태, “북한 문화어의 한자어와 외래어,” 『국어생활』, 15(국립국어연구원, 1988).

A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Debates on How to Purify words in *Urimal*' from 1966 to 1973

Seo, Minjung(Hitotsubashi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social controlling aspects of the language policy and social acceptance aspects of its central project; the 'national language purification movement' in North Korea from the 1960's to the 1970's through a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debates on how to purify words in *Urimal*(our language)' which was published for 554 times from 9th July 1966 to 28th October 1973 in the organizational paper, the 'Rodong newspaper' of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This is an attempt to discuss the North Korean society and its people, their sense and perception of '*Urimal*' by presenting and focusing on the process of debate rather than presenting the words which are purified ultimately. By referring to publications and articles available in North Korea at the time, I paid attention on the importance of newspaper

debates in research on language policy and national language purification movement in North Korea.

Keywords: North Korea, North Korean language policy, national language purification movement, newspaper debates on purifying '*Urima*', '*Rodong*' Newspaper